

주일부사에배

오후 2:00

어린이부

인도, 설교 : 신성민 전도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중고등부

인도, 설교 : 이현규 전도사 · 장소 : 1층 비전홀

주일부사에배

오후 3:30

대학청년부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김갑례 집사 (오후) 이서은 집사

인도, 설교

(오전) 이현규 전도사 (오후)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장길순 권사

(오후) 임혜미 집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찬양과 기도

다같이

인도, 설교

신성민 전도사

다음 주 금요심야기도회 : 찬양예배 및 기도회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신성민 전도사

(화) 이현규 전도사

(수) 이현규 전도사

(목) 박범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토) 이희숙 전도사

RUTC를 위한 30만의 원네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워져 가는

RUTC! GO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1. 오늘 주일2부예배(오전 11시)직후 4층 당회실에서 참사랑교회 장학생선발을 위한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은 장학위원 전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교회가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제5회 지역집중순회캠프가 8월 28일(오늘)부터 30일(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진행됩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제주도캠프 일정으로 오늘날 각 부서 예배시간이 30분씩 앞당겨졌습니다. 해당 부서에 따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 1) 어린이부, 중고등부 : 오후 2:00~3:00 2) 대학청년부 : 오후 3:30~4:30
4. 다음 주 주일(9월 4일) 오전 10시 10분에 4층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당회원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 1) 명예장로 추대의 건 2) 예산중역의 건(중고등부) 3) 예비종직자 임직준비 진행상황 외 기타

5. 2022년 참사랑교회 하반기 주요스케줄을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 1) 제주도(패키지)캠프 : 10월 24일(월) ~ 10월 27일(목) 2) 해외전도캠프
6. 워드코로나로 인해 예배 혹은 교회 출입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2) 수요일오전예배, 수요일저녁예배, 금요일아기도회 / 1층 비전홀
 -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0:00 태영아, 유치부 (2) 오후 2:30~3:30 어린이부, 중고등부 (3) 오후 4:00~5:00 대학청년부
 - 5)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해서서 줄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현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7. 55주년 임직을 위한 예비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명단입니다. (총 42명)

• 55주년임직감사헌금 : 신한은행 100-036-058774 참사랑교회

- 1) 장로 피택자(17명) : 이은숙, 최신혜, 이미지, 최양호, 홍승희, 김금남, 김계자, 여상훈, 최진희, 김준일, 박영인, 유승범, 도상철, 김순호, 이명, 김영진, 이정윤
- 2) 안수집사 피택자(7명) : 주철우, 정창호, 정수환, 박준민, 김승훈A, 박동욱, 정민호
- 3) 권사 피택자(18명) : 황인선, 김지현, 노선희, 김숙희, 정선희, 홍경아, 주은경, 김영희, 조부영, 홍미경, 배운주, 최숙영, 김은영, 이서은, 김지영A, 최송화, 임혜미, 김지영B

■ 기관 및 교우소식

1.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돈 목사 8.30 237화요제자훈련-덕평 RUTC, 9.2 전국 여전도연합회수련회-연악교회)
2.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교회소식

3.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손정환 집사, 강돌봉 집사, 이영경 집사, 배형석 집사, 이순덕 권사)

■ 훈련 및 집회소식

-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www.rutc.tv) 핵심예배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전용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856701-04-233057 (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핵심)
- 237화요제자훈련이 8월 30일(화)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 전국 여전도연합회수련회가 “일천망대를 세우자(마:1-5)”를 주제로 9월 2일(금)에 안양교회에서 있습니다.

8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0주차	제25차 2022세계랩넛트대회(3~5, 타운)
1주차	중고자체수련회(12~13, 춘천) / PK, MK수련회(8, 덕평 RUTC), 237새가족현장사역자훈련(9, 덕평 RUTC)
2주차	대학자체수련회(20, 용인) / 세계청년수련회(15, 덕평 RUTC), 랩넛트데이(20)
3주차	참사랑 장학생선발 공고(21)
4주차	장학위원회 모임(28), 참사랑 자체제주도캠프(28~30) / 237화요제자훈련(30, 덕평 RUTC)

9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유경형 (위원) 박준석 김영진 이용도 이재풍 이정수 천혜숙 최명지B 최보인 최송화 최숙영
성찬위원	(5층) 최칠규 윤홍광 유경형 최영철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영규 (6층) 여동훈 박동영
안내위원	(위원장) 김요한 (1층) 조현지 최일숙 (5층) 김태운 박희영
주치안내	안수집사 전원

2022 제123 RUTC 應答 24

참사랑교회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5-27절)

기도제목

■ 연간 기도제목

-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롬16:25-27)”으로, 전 성도가 결론내고 체질되어지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 예수만이 그리스도(마16:16)이심을 믿는 오직복음을 누림으로 인생이 결론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 완전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되게 하시고 완전복음의 체질이 되도록
 -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5기초, RUTC, 237, 치유, 서밋, 4차산업, 예제능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 제1, 2, 3 RUTC 응답 24의 해에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말씀을 붙잡고 살리는 자의 응답 누리도록
 - 나의 24를 통해 문제 가운데 답을, 갈등 가운데 갱신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보며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누리지도록
 - 교회 24를 통해 빛의 경제와 치유운동, 서밋운동이 회복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도록
 - 현장 24를 통해 나의 업과 직분에 따라 70제자, 70지역운동이 확산되고 전 성도가 현장의 빛의 경제 응답을 받도록
- 3백 지교회·3백 다락방·3백 전도현장에서 3천 제자가 세워지고, 송파·강동 지역복음화를 위한 1만 2천 제자, 수도권 복음화를 위한 20만 제자,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가 일어나도록
- 이 사역을 위하여 정운돈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 중직자, 전 성도와 선교사님들에게 다섯 가지 힘(영력·지력·체력·경제력·인력)이 충만하게 누리지도록
- 히로시마침사탕교회와 심주환 선교사님을 통해 히로시마를 살릴 1만 2천 제자가, 정희권 선교사님과 김현덕 선교사님을 통해 필리핀 살릴 12만 제자가, 김동길 선교사님을 통해 케냐 살릴 제자가, 유지길 선교사님과 김태우 선교사님(C107 RTS)을 통해 C국 살릴 제자가, 서해영 선교사님을 통해 카자흐스탄 살릴 제자가, 금상호 선교사님을 통해 코스타리카 살릴 제자가 세워지도록
-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램프트 서밋을 세워 전 세계로 파송함으로써 미래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 이 일을 마음껏 실현하기 위해 현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도록, 현당을 위한 참된 헌신을 누릴 경제가 모든 성도의 산업 현장에 회복되고, 교회 살릴 70인 비밀결사대와 300인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도록

■ 월간 / 주간 기도제목

- 2022년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결론나도록, 원단에 주신 말씀이 실현되고 응답받도록
- 재앙과 두려움과 질병을 가져다주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전 성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현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0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 강승자 김대식 최정웅 전정아 주재진 권혜경 유경형 리중화 김경환 최복순 전인숙 김원일 김경화 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김종복(한명희)	
300인 용사 (123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연규 이은숙 박점순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진주 오국환 이은희 최영철 최후승 최창영 박지영 최명홍 이계욱 조남은 이은옥 구자성 송영희 박동영 최진희 허경열 홍승희 박희순 이영순 유승범 주은경 박연재 양경심 정운돈 최신영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이수용 이미자 여동훈 백소정 이상춘 서희석 서경례 박철남 김석재 손혜옥 나향님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곤 김경화 채용민 이효숙 송길호 최신혜 오신자 정세원 박희영 양은숙 민경환 권은희 이명재 구운진 김요셉 김혜정 최송화 주철우 정선희 여상훈 노선희 김남숙 박준민 황인선 장성순 박난순 배형석 박인자 김순자 김현 임경미 최양호 김성열 최철규 배명자 신옥희 배승찬 이남현 여준석 김미선 김순호 강요한 김태은 장영호 정향란 박광현 오영숙 이신순 박성혁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이희숙 변연숙 김성순 백순덕 윤희광 김영진 김복남 김옥천 김요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강경현 김급남 임혜연 장경희 정년영 양순옥 공영호 박봉기 이영희 박준석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최정용 정윤돈 박범사-김진아 이현규-김수진 이희숙 신성만-김아영 전인숙-김원일 이병부 최신영 전정아 김정엽 유경형 최영철 최후순 주재간-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진희 최명홍 이계옥 정세완 신승훈 장영규 리종화 김 한-임경미 김선옥 여준석-양경아 김경희 김요한-김지현 배승찬 양경심 김석재-손혜옥 임근일 최철광 윤홍광-장경숙 이근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박철남-서정례 오신자 노선희-여상훈 배형석-박인자 장성순 박난순 이은희 이영순 조성규-김갑례 임영순 장경숙 김명철 이은옥 조유연 오영숙 김계자 김나경 송미경 이미자 이정윤 유영석-박승숙 호민수 이기덕 이윤진 이순근 도정호-유경순 임정미 김근우 김현성-이미희 이종관-서숙정 김대욱-박유진 김해수 김순이 손정환 홍명숙 황유정 김금남 여명 여수아 윤소옥 김정연 이영경 김순자 현영화 임소순 김경애 장유미 이순덕 유제숙 심성하 배은영 박광현-조영주 김수형 최두영 배윤경 이정택-이은수 심주환 송인애 손완식-양은애 심성지 박선주 이 명 정민호-이서은 박희영 장유진 박중식 김춘례 최송화 조수영 여종원 김세희 박주는 김승훈 김소라 유승범 배미선 장대진 이아름 안경호 김순호 윤대현 오아라 정예수 이민수-김숙희 김태은 이주형 정수환 이정미 김영진 최혜숙 김창균-임예진 이가애 도지민 조현근 조재형 조연희 고진순 임혜미 도상철 한경숙 최신혜 임혜연 양은숙 박영인 전주을 나경철 최양호-오난희 황재규 김영희 김준일-최승영 조부영 최진희 조현지A 이은숙 민희선 이효숙 채송아 천혜숙 성도 무명15
십 일 조	김수진 임상식 박점순 배형석-박인자 이성훈-김복란 이현우 이정택-이은순 박철남-서정례 임경미 여동훈 이현주 장성순-박난순 오인태-김지영 이민형 채희은 이아름 김순호 정예수 배승찬 강예림 김순이 최양호 정연규-이은숙 임예진 김영진 윤소현A 오국환 김태은 정선화-주철우
감사헌금	최신영 이은희 배미선 조유연 이은옥 유상규-신혜선 정향란 양경심 김정연 주예진 심주환 최명홍-이계옥 심희순 정민호-이서은 정세완-박희영 최송화 이현주 최신혜 박영인 최양호-오난희 유경형-리종화 박동영-최진희 이은숙 김도원
일천번제	정세완-박희영
첫예물감사	박찬열
차량헌금	박동영-최진희
선교헌금	정윤돈 박범사-김진아 이현규-김수진 윤홍광-장경숙 유제숙 홍승희 강공이 박영인 조성규-김갑례 윤지현 이현주 장성순-박난순 김요한-김지현 김승훈 김순호 유승범 윤소현 최양호-오난희 신승훈 박동영-최진희 정연규-이은숙 김영진 조현지A
필리핀신학교	정연규-이은숙
코로나극복	배미선
헌당헌금	정윤돈 최신영 전정아 이현규-김수진 김미선 최영애 박점순 박철남-서정례 임영순 배형석-박인자 여준석 배윤경 이현주 장성순-박난순 김요한-김지현 정수환 김승훈 유승범 배미선 조현지 윤소현 최양호-오난희 김준일-최승영 김순호 박동영-최진희 정연규-이은숙 김영진 최하을 이지한 유준상 김윤성 정은유 김유은 여선후 김재승 김혜원 김지유 위드237댄스
장학헌금	김원일-전인숙 강공이 윤홍광-장경숙 박영인 장성순-박난순 김요한-김지현 김승훈 유승범 김순호 최양호-오난희 조현지 최창영-박지영 박동영-최진희 정연규-이은숙 김영진
RUTC헌금	이은희 박인자 유경선 박철남-서정례 김요한-김지현 김승훈 최양호-오난희 조부영 박동영-최진희 정연규-이은숙 김영진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2.8.17. - 2022.8.23.)

* 헌금 입금 하실때는 반드시 한글7자 이내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차량 구입헌금(2022년도)	현재헌금 합계 : 510,000원
참사랑 RUTC헌금(2022년도)	현재헌금 합계 : 14,254,172원
헌당헌금(2022년도)	헌당헌금 합계 : 81,740,686원
헌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506,000,000원 (한화 4,958,800,000원 / 100엔환율=98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헌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은행 100-035-010731 참사랑교회RUTC	

2022년 구역조직 - 1교구

- 교구장 : 정윤돈 목사 |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이희숙 전도사, 신성민 전도사 | 총무 : 이미자 권사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역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이은희	오국환 이은희 오유라 오이라 박점순 이신순 배형성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최일숙 구다빈 유제숙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민준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이재광 김주영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정윤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김효경 문예은 최하나 최한별 주종성 신성민 김주영
	③오금3 (여동훈)	최진희	김지현	박동영 최진희 박서윤 박찬열 최정웅 전정아 최봉식 최신주 최혜나 김요한 김지현 김윤진 김운서 김운주 김운성 조영희 장혁준 정다경 윤태빈 윤예빈 정혜찬 김승훈
2지역/ 이미자	④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u>이은수</u> 김홍기 문길순 정철호 유경선 정동주 정동훈 김경혜 김선영 박은서 김유진 오은사 김갑래
	⑤방이2 (최칠규)	홍미경	박은진	최재혁 홍미경 최욱현 최모연 박은진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정순 김명자 김성배 조현지
	⑥천호 (유경형)	리종화	홍경아	유경형 리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권우현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정민진 이영숙 홍형표 정서운 박철남 <u>서정례</u>
3지역/ 김금남	⑦잠실 (김요한)	박지영	조부영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최창영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권구현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김옥천 전민식 구순자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채 최영국 김윤지 고정호 고정협 김세희
	⑧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임근일 양은숙 임혜미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김금남 김승숙 김수민 김효민
	⑨하남 (김경희)	김영희	오난희	박동욱 김자영 박시은 박라은 손완식 양은혜 손보국 김영희 황혜주 손병순 배운주 배미선 장대진 배운경 배태현 심하순 이정택 <u>이은수</u> 김경희 현백규 전영종 이기원 조수영 최양호 오난희 최고는 김성재 윤태자 김준석 정수환 정재환 손보미 손재현 김중석 이영희 김태우 장세민 김영희 강정자 최칠규 한영화 최종인 최종현 이현규 김수진 심성하 유지열 송민호 한소연
4지역/ 오난희	⑩오금4 (정세완)	박희영	김순이	정세완 박희영 권영숙 김순이 구성하 김춘례 박중식
	⑪오금5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주재진 권혜경 주예진 임경순 <u>양순옥</u> 임신규 김 현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유성규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김계자 박다현 허영옥 김금녀
	⑫오금6 (최명홍)	이계옥	홍정아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최명홍 <u>이계옥</u> 최송화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업찬웅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2년 구역조직 - 2교구

- 교구장 : 정윤돈 목사 |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이희숙 전도사, 이현규 전도사 | 총무 : 이명 권사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역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5지역/ 양경심	⑬올림픽1 (양경심)	장길순	이영순	이영순 서숙자 유윤식 장길순 유효진 유윤재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⑭올림픽2 (양경심)	홍승희	이아름	정년영 <u>허경열</u> <u>홍승희</u>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김정연 이아름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⑮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황인선	박엽재 <u>양경심</u>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이재윤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6지역/ 홍승희	⑯강서 (김현)	채희은	서숙정	도상철 채희은 도성용 박성혁 이하나 박주안 박주하 박세아 구황정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종관 서숙정 이지한 이주한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민경 엄현식 최아름 엄지은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 김소은 박범서 김진아 임영순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김형준 <u>박현주</u>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⑰강남1 (김석재)	손혜옥		명충현 김수득 이미숙 김화랑 김혜인 <u>김석재</u>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수 <u>강현자</u> 김나경 김희경 김정진 강은혜 김지아
	⑱강남2 (박현주)	김순호	김경애	안경호 <u>김순호</u>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김원일 <u>전인숙</u>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권세미 김경애
7지역/ 이명	⑲오금7 (배승찬)	이명	김숙희	구지성 <u>송영희</u> <u>배승찬</u> 이 명 배준서 배현서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이명재 구운진 김창균 임예진 <u>김혜윤A</u> 김재승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이민수 김숙희 이하연 이하준 윤순옥 원태연 원아연 윤지은
	⑳오금8 (이군재)	최혜숙	유경순	<u>오신자</u> 손정화 <u>홍명숙</u> 손가을 손하늘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우 <u>이군재</u> 이순근 이우나 김영진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이 하 안지용 안수현 김순자 <u>최영B</u> <u>강영석</u> <u>김희하</u>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규 도지민 이병부 김정엽 김윤태 박숙자 신혜인 고대중
	㉑오금9 (여준석)	이정미	이선아	안진성 문경화 안서운 안채운 안신영 한상만 이영주 한서영 한준영 김창대 이정민 김아리 <u>김영A</u> 정문철 이선아 정유호 정은유 위준승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이민형 이주형
8지역/ 최신혜	㉒문정 (장영균)	송미경	고진순	<u>장영균</u>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고진순 방주는 이용곤 <u>김경B</u> 이동석 이동현
	㉓장지 (리종화)	최신혜	이미화	장성순 <u>박난순</u> 장하영 장하은 송길호 최신혜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박진순 이희숙 박주봉 박주승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나종훈 이미화 <u>김자영</u> 김민영 김근호 배은영
	㉔가락 (정연규)	이은숙	최숙영	<u>정연규</u> 이은숙 <u>여동훈</u> 백소정 여현지 여종민 여은성 김태운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 임동영 장유진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u>김옥A</u> 정종규 정창호 김미현 정민호 이서은 노은현 유승민 마운경 유재훈 유현주 신한수 이은B 신민승 신연서 <u>김하영B</u> 손상현
9지역/ 박영인	㉕거여 마천 (최영철)	최후순	이순덕	<u>최영철</u> 최후순 최요한 최지은 <u>신승훈</u> <u>박영인</u> 신동운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천 용 오영숙 <u>김옥B</u> 이 석 김재우 유충현 강공이 유승호 이정운 이순덕 이영경 김재영 황인기 전주율
	㉖성내 둔촌 (윤홍광)	정향란	김은영	정향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장영호 조선미 함조식 소속현 함재이 김해수
	㉗고덕 (신승훈)	장경숙	김지영B	<u>윤홍광</u> 장경숙 윤 현 <u>윤소현B</u> 윤하영 오인태 <u>김자영B</u> 오하림 오하운 한경숙 변지영 <u>김선옥</u> 이춘화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박선주 송인애 이운민 이윤건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김지수

가장 어려울 때 복음의 안테나로 쓰임 받은 70인 제자 베드로

-복음으로 여는 베드로전서-

다니엘 6:10, 베드로전서 4:12-14

다니엘은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안테나의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만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가 오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서명타임을 가졌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응답 되나고 하는데, 그건 기도를 안했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다 응답 되고, 기도 외에 다른 것 다 할 필요 없다. 기도만 하면 다 되게 되어있다. 문이 열린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 건강과 힘과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하게 되어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방법이다. 베드로는 부족한 점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런데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 거듭났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전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였다. 그때 전한 메시지는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어려울수록 정확한 복음을 찾아내고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많은 성교자들은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보면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보다는 로마의 핍박과 고난이 심할수록 더욱 더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들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복음과 진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중심을 담아야겠다. 복음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연도 움직이신다. 국토도 아름답게 하신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 모두 황폐해진다. 제가 남미에 갔는데, 파나마 선교사님이 옆에 있는 공산국가에 6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비도 안온다고 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삶과 자연에 관계가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6.25 전쟁이 끝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교회를 지었고,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10대 국가가 되었다. 이게 노력일까? 노력은 복한이 더 많이 한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그리스도로 결론과 답을 내지 않으면, 기도로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때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낸다면 모든 면에서 응답 안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류목사님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할 때 다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 저는 그걸 아직 못 깨달았다고 이야기한다. 천만분의 일, 백만분의 일만 깨달아도 응답받는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기도로 가장 행복해지시기를 바란다. 그래야 증인될 수 있다. 기도하면 응답이 쏟아진다. 메시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실천하면 바쁘다. 기도하면 모든 문이 열린다. 모든 게 보인다. 바쁘다.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의미 있고 축복되게 주시기 때문이다.

1. 첫 번째에서는 먼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주신다.

(1) 첫째로 말한 내용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십자가는 미완성이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많다. 그런데 부활한 사람은 없다. 부활함으로 용서와 죄 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렸다. 부활이 뭐가? 1장 3절을 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어떻게 거듭났을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 재앙과 저주의 존재에서, 모든 축복을 받는 운명, 시주팔자에서 벗어난 존재로 거듭났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겨우 구원받고 신분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면서 하나도 응답받지를 못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②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은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한다. 1장 4절에 보면 ③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④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축복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기뻐해야 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응답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방법이다. 사도행전 1절, 3절, 8절은 그리스도로 결론낼 때에 나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과 응답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와 가문은 다 잘됐다. 램넌트들이 이걸 모른다.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영국과 스위스 등 모든 나라는 복음이 증거될 때 해가 지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다.

(2)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헌신들은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함께 어머머한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다. 교회 안 다니면 주일날 놀고 늦잠 잘 수 있고, 현금 안 해도 된다. 헌신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여기 모였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소자에게 물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주일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현금하는 건 공짜가 아니다. 천만 배와 몇 억 배로 나와 후대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겠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

(3) 세 번째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고 있다. 결국인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의 시작이다.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열매가 영혼 구원이다. 결국 구원이다.

(4) 네 번째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은 행위를 통해서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게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한 게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을까?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피로, 부활하신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입고 구원함을 얻었다.

(5) 우리들이 구원받은 존재로 또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신분으로 거듭난 것은 씌어질 육신적인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씌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씌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분이나 방언 받는 것이 아니다. 느낌이 아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법적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시키는 법이다. 외형과 인종과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법이다. 그 법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법이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성구 51구절을 수백 번 읽으면서 정리해야겠다. 다락방 할 때 복잡한 게 아니라 한 구절 읽고 설명하고 한 구절 읽고 설명하면 된다. 그러면 직접 성장한다. 새가족은 자기가 직접 찾고 줄 그으면서 더 확신이 생기고 성경 말씀이 답다는 걸 느껴야 신앙이 자란다. 그 방법이 복음요절을 찾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다락방에서 일을 해야 한다.

(6)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덕이 구원의 복음을 말한다. 이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리를 불러내서 이런 소중한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구원을 받고 이제 전도자로 불러주신 게 엄청난 축복이다. 복음을 237 나라에 전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70 나라로 이제 가야한다. 전도자가 가면 흑암 꺾인다. 놀라가도 가면 포럼되고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할 수 있다. 죽기 전까지 237 나라를 다 못가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70개국을 가야겠다.

2. 베드로 사도가 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수록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1)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불신자 시절의 체질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어려운 일이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목표이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특히 16절이다.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션을 주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버려야겠다. 담배도 폐가 안 좋아지니까 버려야 한다. 건강관리 하는 사람은 술 안 마신다. 마약 안 한다. 어디서 만든지도 모르는 음식 먹지 않는다. 먹는 건 절반만 먹고 운동하자. 영육 간에 흠과 티가 없도록 보전되어야 한다. 격경과 염려 근심은 마음을 더럽힌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건 영혼을 더럽힌다.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를 목상하는 일이다. 영혼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육신도 깨끗해진다.

(2) 그러면서 2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구원을 얻었으니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한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게 나온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온갖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복음과 그리스도와 맞지 않고 성령의 열매와 맞지 않는다.

(3)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며 세계관이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제도에 이유 있는 순종을 해야 한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적국에서도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다.

(4) 직장에서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했다. 댁님들이 직장생활 끝내고 상관에게 투덜대며 일에 집중 못 하면 성공 못 한다. 오히려 까다로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복음적인 방법이다. 요셉을 비롯해서 다 노예였고 포로 속국이었다. 거기서 이겨야 한다. 자기 주장이 없다. 거기서 빛이 되고 인정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다. 이게 될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날마다 주인을 바꾸어야 한다. 예수님이 충만하면 자동으로 된다.

(5) 이 정도가 아니고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초특급의 믿음이며 완전 복음의 믿음이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오히려 부당한 걸 참으면 아름답다고까지 한다. 이게 복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러한 삶을 모범으로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 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 말 없으셨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말하는 건 아직 예수가 주인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기준 수준 표준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면 응답은 계속 뒤로 밀린다. 하나님은 될 때까지 때리신다. 안 주시는 게 축복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육신적으로 잘되면 그건 저주다.

(6)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는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다. 아내가 자꾸 잘난 척하고 이래라저래라 하면 자연섭리에 맞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야한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끈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자는 자기를 조금만 높여줘도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한다. 그러다 아내가 물어보면 아내 알아서 하라고 한다. 그런데 아내가 자꾸 반대하면 남자는 폭력을 행사한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폭언하거나 하지 말며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을 따라서 거하라고 했다. 다른 직업을 갖거나 전문성을 가질 때는 공부하면서, 결혼할 때 공부한 적 있을까?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심각하다.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7)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이제 거듭나서 베드로가 신앙고백으로 말하고 있다. 과거에 들을 땐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소화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안테나의 송신 역할을 하고 있다. 3장 10절에서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11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게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다.

(8) 그뿐만 아니라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할 ‘삶의 중심’과 ‘중요한 준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주로 삼아야한다. 예수님을 주인 삼았으면 모든 면에서 거룩함을 쫓아야한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좋아하면 소망의 관한 이유를 내게 물어볼까?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어야 소망의 관한 이유를 물어본다. 그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이유를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세다.

(9) 4장 3절에서도 다시 한 번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을 버리라고 한다.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했다. 예수 믿고 이런 과거에서 거듭나면, 내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거듭나게 된다. 너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것처럼 느낀다. 그게 거듭남이다.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과 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4장 8절에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 이 어려운 세상에 복음 안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헌신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복음을 이어갈 후대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4장 10절에 성도들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5장 2절로 3절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정말 힘들게 억지로 하는 분이 있다. 재대로 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올 수 없다.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진다. 내 현장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환경과 조건은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어야겠다.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다. 청년들이 너무 비판만 하기보다는, 때가 되면 여러분의 때가 오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는 순종하고 귀를 여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그러면서 5장 7절로 8절에서는 가장 어려울 때 우리들이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사탄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을 함께 보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염려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근신하고 깨라고 하신다. 구원받은 사람도 불신앙하고 염려, 근심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마귀가 잡아먹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바른 이정표와 방향을 전달하는 영적인 안테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핍박도 우리들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보좌의 능력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된다고 하셨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고난 중에서도 24시간 복음을 누리고 증거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가 생겨도, 다른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고 전도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겸허하게 증인이 되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성취의 증인이 되라.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집중한다면 모든 흑암은 꺾이고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치유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번 주에는 내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복음의 내용과 나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록해보시기 바란다. 내가 생각하고 인정만 해도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명하기 위해 베드로처럼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안테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아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전도사	이희숙 010-9491-6347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용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교육전도사	신성민 010-6600-6091	관리집사	김수득 010-4603-0888
전도인	최진희 이미지 김금남 오난희 양경심 홍승희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사무) 유경형 최영철 주재진 윤두영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김종복 신승훈 김성열 장영균 리종화 김현 허경열 서성원 여준석 김경희 김요한 배승찬 양경심 김석재 임근일 최철규 윤홍광 (협동) 이근재 박현주 전민식 (해외) 김선옥 최봉식 (은퇴) 명춘현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서정례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찬양대	(지휘) 황인선 이종관 (오르간) 이서은 (피아노) 이재유 최송화 최후순 김지현 최신영 윤소현 (바이올린) 임예진 강예은 오유라 김재우 최보인 고정협 (플루트) 최중현 강소영 (첼로) 조유연 (클라리넷) 고정호 (트럼펫) 김경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태ैया부	수 오전 11:30	1층 비전홀	
	2부 오전 11:00	참사랑홀	유치부	주일 오전 10:00	3층 제2랩넛실	
	4부 오후 2:30	1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30	5층 참사랑홀	
	5부 오후 4:0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30	1층 비전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4:00	5층 참사랑홀	
	수 오후 7:30		사망부	목 오전 10:30	3층 아트홀	
금요심야기도회	금 오후 8:00	영상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새가족훈련	토 오전 9:00	예원교회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예원교회	
1단계제자훈련	주일 오후 1:20	4층자료실	강사단(전도학)	토 오전 9:40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0	3층주간보호센터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3층 제2랩넛실	
개인회기도수집	주일 오후 1:20	4층프로그램실	핵심훈련재방송	주일 오후 1:20		
치유상담	주일 오후 1:20	3층데이케어센터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1:20	5층 참사랑홀	
태ैया사망자	주일 오후 1:20	3층제1랩넛실	태ैया전도학교	목 오전 11:00	1층 비전홀	
어린이사망자	주일 오후 1:00	3층제2랩넛실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2:00	1층베셀룸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3:00	비대면(Zoom)	
군선교부기도회	매월 둘째주일 오후 1:00	5층 참사랑홀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국내외선교지

해외선교지 (7)	해외파송자 (23)
(일본 히로시마참사랑교회) 심주환-김현숙 (C국) 유지길, RTS-107신학교, (케-HRU) 김동길 (코스타리카) 시온교회(금상호-김미경) (필리핀) 김현덕-조성신, 다라방필리핀신학교-정희권	(미국) 최형란-권순민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 이슬 김수 (호주) 박영준-김수미 박영환 (독일) 배영광-정우연 (네덜란드) 배교은 (영국) 박경아-니콜라 정혜찬 박서윤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일본) 이정민 오유라
후원단체 (5)	군파송자 (4)
RUTC방송국, 총회군선교회, (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사)서로사랑, 대학선교국미션홈	(육군) 이민형 김근호 정진옥 (공익) 김수행B

교회 역사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 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윤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교단에 소속된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4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렘넌트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참사랑서밋어린이집을 운영,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